

빙과류·라면제품... 소비자 권장가격이 없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매장에 따라 가격편차 커

권장소비자가 사실상 유명무실... 소비자 불신 키워

광주 광산구에 사는 주부 박모(43)씨는 최근 동네 대형 마트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잘 먹는 아이스크림을 사려다가 제품에 가격이 안 붙어 있었다. 진열대에는 원래 가격과 할인 가격을 비교해 보기에 편했지만 아이스크림 등 일부 품목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 물건을 사기가 불편했다.

마트를 비롯한 상당수 유통판매점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과자, 라면 제품 등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는 매장에 따라 가격이 1500원이나 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YWCA소비자상담실과 순천YWCA·여수YWCA와 함께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 101곳을 대상으로 과자와 아이스크림, 라면, 빙과류 등 4가지 품목의 가격 표시 여부와 판매 가격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판매되고 있는 13개사 175개 제품 중 54.2%인 95개 제품

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라면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를 폐지하면서, 권장소비자가를 부활시켰지만 식품업체들이 따르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제품의 판매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뒤 대폭 할인 판매하는 이른바 '속임수 판매'를 없애기 위해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의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반값 아이스크림'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불신이 심각한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 가격 표시 제품은 2개에 불과해 가격 표시율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라면의 경우에는 72개 제품 가운데 40개(55.5%)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과자도 41.0%가 가격을 미표시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



마트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에는 '권장소비자가' 표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구매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가 가격표시를 업체 자율에 맡겨놓으면서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가격표시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똑 같은 제품이라도 매장에 따라 판매 가격이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과자·아이스크림·빙과류·라면 4가지 품목 20개 제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이는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사의 과자의 경우

90g 1개 가격이 매장(광주 지역)에 따라 1700원에서 3210원으로 1510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라면의 경우 B사 130g 1개 가격이 매장별로 최대 860원, A사의 빙과류도 최대 800원의 차이가 났다.

기유정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부장은 "소비자들이 2000원 미만의 제품을 살 때 가격비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판매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 등이 적절

히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경우 적정 가격에 구입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격이 표시된 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가 각 매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평균 금액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판매가격에 부합하는 권장소비자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관계 부처와 소비자들의 감시·압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기자 김정미)

과일 당도 표시 이뤄져야

마트 등 '엄선' '선별' 애매모호한 문구로 현혹

모든 공산품과 포장된 음식에는 제품 및 영양 성분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과일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다. 과일의 생명은 당도다. 달지 않은 과일을 살 경우 거의 한 박스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모두 마찬가지다. 표시된 문구를 보면 '당도를 엄선한' '당도를 선별한'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단 지, 당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

신진국의 경우는 당도에 따라 제품을 선별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우리는 모든 제품에 당도를 수치로 자세히 표시하기가 어렵다면 대략적이거나 상, 중, 하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표시하고, 이에

따른 가격도 다르게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전, 한 대형마트에서 1만 원을 주고 5개들이 복숭아 한 상자를 샀다. 그중 한개를 씹어 먹었지만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다. 추가로 하나 더 먹었지만 역시 단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과일은 크고 모양도 좋았다. 이런 식이다. 이 마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수 대형마트의 복숭아들이 그렇다. 두 개나 먹은 상태고, 맛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탓에 교환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마트에 비해 백 가량 비싼 고급 과일을 판매하는 백화점들부터 우선적으로 과일제품에 대한 당도표시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주변들의 생각이다. (시민기자 김정미)

용돈관리하고... 나만의 저금통 만들고...

光銀 아이들 눈높이 맞춘 금융교실 호응

광주은행은 지난 8월 20일 광주은행 본점 2층에 위치한 KJB 금융박물관 금융교육실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방학 금융교실을 열었다. (사진) 지역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금융교실에서는 저축을 주제로 한 강의와 '나만의 꿈 저금통 만들기'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융교실에 참여한 지역의 어린이들은 각자의 저축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저금통'을 만들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KJB대학생 홍보대사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도와주고, 합리적인 용돈관리법 등을 직접 알려주며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청소년 금융교육은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법,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금융권 취업 등의 주제로 수준별 교육을 펼쳐지고 있다.

올해에만 이미 4200여명을 대상으로 65개 학교 및 기관에서 총 88회에 걸쳐 펼쳐진 광주은행의 금융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시민기자 최혜인)



마로스튜디오 '어린이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각광

'우당탕탕아이쿠' 안전상식 코믹하게 그려

지역의 최대 애니메이션 업체인 (주)마로스튜디오가 어린이나 유아가 혼자 있는 상황에 맞춘 안전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EBS에서 52편이 방영되는 등 주부와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마로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은 부모들이 항상 고민하는 '어떻게 예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와 어린이들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안전사고 대처방법을 쉽게 기억하도록 교육이 가능한 가라논 고민이 역력한 작품들이다.

기존 안전교육 콘텐츠처럼 '하지 말라'로 일관하는 무조건적인 메시지 전달로는 어린이들의 흥미도 얻

지 못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혹은 피서지 물놀이를 갈 때, 흑사라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2010년 5월 28일 EBS에서 첫 방영을 시작한 '우당탕탕아이쿠' 시즌1은 EBS와 (주)마로스튜디오가 어린이 안전사랑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여의 기획 및 개발기간을 통해 선보이게 된 애니메이션이다. 외계에서 지구로 여행을 온 피파왕자 '아이쿠'를 주인공으로 시종 로봇 비비와 지구인 소녀 레미가 함께 벌이는 슬랩스틱 형식의 소동극을 통해 안전상식을 보다 코믹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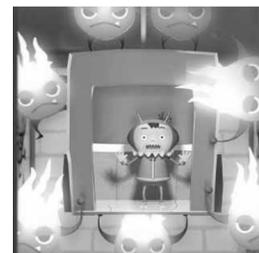
'우당탕탕아이쿠'는 아동심리 전문가 및 안전교육기관이 제작 참여하고 관련 전문인의 철저한 감수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나 야외활동 안전사고,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식중독이나 목욕 안전 등 집 안팎의 위험요소에 대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내용 52편을 알차게 담았다. 아이들은 지구 환경에 낯선 말쑥쟁이 외계인 왕자가 벌이는 아슬아슬한 일상의 모험을 따라가는 동안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보며 스스로 위험성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상식을 체득하게 된다.

제작진의 의도는 적중해 어린이는 물론 부모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부모가 여러 번 얘기할 때보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기억을 더 오래하는 것 같아요." (EBS 시청자게시판 중) 등 시청자들이 보내는 '아이쿠'에 대한 칭찬과 지지는 뜨겁다. 못생긴 코를리게 외계인 아이쿠의 모습

이 처음에는 이색적이고 낯설었지만 이내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전략으로 유아콘텐츠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즌1 방송 이후 지역 최초로 2010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애니메이션 부문 대통령상 수상, 2010 NHK JAPAN PRIZE 본선 진출, 국내 유일 소방법재정 애니메이션 후원승인, EBS 최고 시청률 달성, 재능TV 시청률1위, 예플 엠스토어 교육분야 다운로드 1위, 뮤지컬 예매순위 1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등 '아이쿠'의 활약은 TV 안팎에서 뜨거웠다.

뿐만 아니라 부가사업 면에서도 '아이쿠'의 활약은 멈추지 않고 DVD, 뮤지컬, 출판, 봉제인형, 어린이 밴드, 입체퍼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이선싱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로스튜디오 박일호 대표는 "앞



애니메이션 내용 중 주인공 '아이쿠'가 화재 상황에서 대처하는 장면.

으로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안전상식과 대처 요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어른과 함께 생각하고,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안전지킴이 우당탕탕아이쿠'는 앞으로도 꾸준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법을 전달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기자 박수정)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총정로5기 버스도로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매도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건평327㎡(99)공시지가 2억8200 매도 3억
- 함평군 영업 절되는 여관 포함해 접해있는 주거지역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 등 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신창동 진흥고 부근 대지302평 건물715평. 회사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전세4억43천 월 1650만원선 35억
- 매도. 수기동 상업지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 가능 은행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난 평480평 은행2억 8천 투자 가치좋은 5억6천만원
- 매도. 신안군 지도읍 비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38평 25세대, 54평 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 가능. 38평은 1억3900만원 54평은 1억8500만원 임대도 가능함
- 매도. 쌍촌동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24㎡ (8평형) 10채 해당 보증금5000에 월40 임대가능 세대당 대출은 3500 매도는 총당 6200만원 실무자 2억2천에 월4000선 수입예상 임대생활에 적합 6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 167㎡(50) 보증금 5천 월2백선 조정가능 주차장 넓은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서 신축중인 호텔급시설의 생활주택37㎡(11평) 모든시설완비되어 있음 보증금5000에 월40만원. 9월말경 첫임주. 운전역에서 7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 70평 다양한 품도 사용가능. 40평과 30평으로 분할 임대도 가능. 보증금5000에 월200선. 조정 가능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건설링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중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방동,자문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6천만(조정가능)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7층) 보5.9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원.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마트, 정예예수장, 투자최적)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 매 36억원(병원,사옥)

차평동 광송간도로 395㎡

- 매14억원(병원,사옥,전시장)

쌍촌동 운전역부근 상업지

- 845㎡ 매가25억 (사옥,전시장,병원,도시현)

• 상가건물, 나대지 금구 •
010-3753-0033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